

## 한국의 쌍따옴표 저널리즘과 헤드라인 번역: 연합뉴스 연성화와 한일번역 분석을 중심으로\*

박 미 정  
(한국외대)

### 1. 들어가기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은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점을 전달하며, 기사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Van Dijk 1988). 또한 헤드라인은 “가장 적확하고 간결하게 요약된 기사 (野口 2002: 94)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기사를 읽기 전에 헤드라인을 통해 기사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기사를 정독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더욱이 해마다 신문의 구독률과 열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정태철 1995a: 204; 이준웅 & 최영재 2005: 6)은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본문의 내용까지 읽도록 만드는 헤드라인의 역할과 영향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40년대부터 ‘제목 소비자(a shopper of headlines)’(English 1944: 217-29)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이는 신문 독자들이 헤

드라인 위주로 신문을 읽고 있는 경향을 말해준다. 국내에서도 한국 독자들은 제목과 기사 앞부분을 주로 읽는 구독 형태를 보이고 있다(정태철 1995b; 김병홍 2007; 윤영태 2006). 한편,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헤드라인 기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평균 4.0(‘매우 중요하다’ 5.0 만점)의 인식도를 보이는(정태철 1995a: 258) 등 기사를 제공하는 기자들 역시 헤드라인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은 저널리즘이나 독자의 수용성 측면에서 볼 때, 신문 기사의 본문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매년 신문에 대한 구독률과 열독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헤드라인 위주로 기사를 소비하는 저널리즘 문화의 확산 등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헤드라인의 특성 및 기능, 헤드라인을 다는 관행 등은 언어 문화권 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국 헤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직접 인용구를 기사 제목에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직접인용구는 기사 본문에서도 독자의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강렬한 요소이므로 원래부터 그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Brooks, Kennedy, Moen, & Ranly 2002)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헤드라인에 직접인용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기사 제목에 직접인용부호를 남발하는 이른바 ‘쌍따옴표 저널리즘’은 한국의 저널리즘 학자들(김동규 2004; 박천일 2004; 최영재 2004; 양승목 외 2006; 이준웅 외 2007; 황치성 2008; 박재영 외 2007)로부터 지적받아 온 지 오래다. ‘쌍따옴표 저널리즘’은 특정 정보원의 발언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용 보도(이준웅 외 2007: 67)하는 한국 헤드라인 저널리즘 관행을 꼬집는 용어이다. 이러한 쌍따옴표 저널리즘은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 매체 가운데, 저널리즘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지적되지 않았던 통신사 연합뉴스의 ‘쌍따옴표 저널리즘’에 주목하고, 한일 번역에서 이러한 ST의 저널리즘 관행이 어떻게 반영, 또는 조정되는지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연구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째, 쌍따옴표 저널리즘으로 평가받는 한국 종합일간지의 헤드라인과 연합뉴스 헤드라인을 비교함으로써 연합뉴스 헤드라인 역시 쌍따옴표 저널리즘 관행을 보인다는 것을 특정해 보일 것이다. 둘째, 연합뉴스가 ‘신속한 정보전달’이라는 통신사로

\* 본 연구는 2019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서의 역할과 정체성에서 벗어나 쌍따옴표 저널리즘의 관행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여러 저널리즘 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의 한일 번역에 대해 기능주의 이론으로 접근해 번역자의 개입에 따라 헤드라인의 텍스트 유형이 TT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2. 이론적인 배경

### 2.1. 한국의 쌍따옴표 저널리즘과 번역

#### 2.1.1. 한국의 쌍따옴표 저널리즘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뉴스 헤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쌍따옴표를 이용한 직접인용구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2008년 실시한 주요 일간지에 대한 황치성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뉴스의 쌍따옴표를 이용한 직접인용 헤드라인 비율이 전체적으로 42.1%에 달하고 있다(p. 94). 헤드라인에 사용되는 직접 인용구는 기사 내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이고, 기사의 전체적인 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Itule & Aderson 2003), 미국 신문 편집에서는 직접인용구를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Garst & Bemstein 1961). 한편, 한국에서는 제목에서의 직접 인용부호 사용이 저널리즘의 편집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준용 외 2007: 65-66). 이러한 헤드라인의 직접인용구 과잉사용은 기사 내용을 선정적으로 포장하거나 주관적으로 윤색할 수 있다. 또한 기사 내용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본문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책임 회피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쌍따옴표 저널리즘에 대한 저널리즘 학자들의 비판은 상술한 바와 같이 선정성과 주관성, 사실성에 대한 책임 회피<sup>1)</sup> 등의 내용으로 수렴된다.(김동규 2004; 박천일 2004; 이상길 2003; 최영재 2004; 박재영 2006). 따라서 헤드라인의 직접인용구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

1) 기자들이 정보원의 말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행위는 자신이 보도하는 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의례(Strategic ritual)이다(Tchman 1972: 665-670).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과 일치해야 최소한의 엄격성과 일관성을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다 (박재영 2006: 169).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저널리즘에서는 기사 제목에 직접 인용부호가 남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목의 직접 인용구가 본문의 인용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박재영 2006; 이준용 등 2007). 제목의 직접인용구는 대부분 본문의 직접인용구를 침삭한 형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에 아예 없는 직접인용구가 버젓이 등장하기도 한다<sup>2)</sup>(ibid.).

#### 2.1.2. 헤드라인 번역 관련 선행연구

2000년대 들어 모바일 등 인터넷 기반의 뉴미디어 환경이 대두하면서 헤드라인 위주로 소비되는 뉴스 기사에 대한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헤드라인을 기사 본문의 부차적인 요소로 인식하던 연구와 논의의 방향이 저널리즘 학계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들 저널리즘 학자들은 “기사의 제목과 본문이 일체의 단위로 여겨지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기사 제목이 지닌 분리된(독립적인) 의미와 영향력 에 관해 새로운 맥락에서 연구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이준호 2015: 250). 헤드라인을 뉴스 기사와는 별도의 독립된 연구 대상으로서 주목하는 움직임은 비슷한 시기 번역학계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학습자 교육 관점에서 헤드라인 번역에 접근한 연구로는 김한식(2010), 함수진(2014), 원효설(2018) 등이 있다. 전통적인 언어학과 수사학 관점에서 헤드라인을 바라보는 연구들로는 황은아(2014), 황순희(2015), 리 홍시아(Li Hongxia 2005) 등을 들 수 있다. 스크포스 이론(강수정 2011, Shi 2014)이나 뉴마크(Newmark)의 이론(Yonghong 2017) 등 번역학 이론을 통한 헤드라인 번역 분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비평적 담화분석<sup>3)</sup>(강지혜 2008, Alireza 외 2013)이나 네러티브(박미정 2013) 등 저널리즘과 서사학적 방법론을 헤드라인 번역 분석에 적용시킨 다학제적 연구들도 눈에 띈다. 분석 언어를 보

2) 기사 제목의 직접인용구가 본문에도 정확히 그대로 있는 기사는 5.7%에 불과했다. 제목의 직접인용구가 본문에 전혀 없는 기사는 10개중 1개꼴(10.3%)로 발견되었다. 대다수(83.9%)는 본문의 직접인용구를 약간 변형시켜 제목에 사용하고 있다(박재영 2006: 187)

3) 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면 국내 헤드라인 번역 연구가 영한, 중한, 일한, 불한 등 다양한 언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페르시아어, 아랍어 등의 아랍권과 중국어권 헤드라인 분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헤드라인 번역 선행연구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국의 쌍따옴표 저널리즘과 그 번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용 내용<sup>4)</sup>은 매체가 다루는 바가 수용자에게 알려져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이건호 & 고흥석 2016: 1). 따라서 뉴스 기사에 있어서 적절하고 바람직한 인용은 대단히 중요하고 연구 가치가 높다(박대민 2015; 박재영, 이완수 2007; 이준웅 2010; Anderson & Itule 1988). 헤드라인과 번역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저널리즘 연구와 번역학 이론(기능주의)을 함께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화된다.

## 2.2. 뉴미디어 환경과 연합뉴스 헤드라인의 연성화

### 2.2.1. 뉴미디어 환경과 포털 뉴스의 연성화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뉴미디어 환경과 전통 미디어 환경의 경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포털을 중심으로 한 뉴스의 유통구조가 저널리즘 생태계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이준호 2015: 250-51). 이렇게 저널리즘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국내 미디어 이용자들이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미디어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네이버로 대표되는 포털이 뉴스 소비의 중심 공간<sup>4)</sup>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털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관련 서비스와 콘텐츠를 한 공간에 집합시켜 놓은 웹사이트로 정의할 수 있다(백선기 외 2007: 64). 포털은

4) 한국언론진흥재단(2012)이 실시한 인터넷 뉴스 이용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이용자가 ‘포털 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뉴스 제목이나 사진을 보고 클릭해서’(71.5%)로 답해, 인터넷 뉴스 이용에 있어서의 포털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 언론진흥재단과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함께 조사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p.12)에 따르면, 뉴스 이용에 있어 디지털 미디어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64%) 등이었다. 미국, 호주, 영국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의존도와 전통 미디어(특히 텔레비전) 의존도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텔레비전 의존도가 디지털 미디어 의존도보다 높았다.

이용자를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 거의 모든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의 출발지(Dominick, Messere & Sherman 2004)인 동시에 “인터넷 이용의 최종 목적지 다(김위근 2014).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소비의 증가를 언급한 학자들(박선희 2001; 이희완 2005; 성동규 외 2006 ; 반현 & 권영순 2007; 최영재 & 송현주 2007; 김위근 & 김춘식 2010; 조화순 외 2012; 김위근 2014; 이재신 외 2009; 이준호 2015 등) 가운데, 대표적으로 김위근(2014)의 설명을 잠시 소개해보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포털을 통해 다양한 뉴스 미디어가 생산한 다양한 분야의 뉴스 콘텐츠를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뉴스 이용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다(p.6). 즉, 우리나라 포털이 검색 기능<sup>5)</sup>과 함께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패키지(ibid.: 7)가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다른 나라보다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는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포털 내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런데 이는 이용자의 관심을 받는 콘텐츠 및 정보만이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 뉴스의 경우, 이용자의 눈길을 끌고 흥미를 유발할만한 뉴스 제목이 아니면, 이용자로부터 처음부터 외면받게 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4)이 실시한 언론소비자 인식조사도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만 자극적이거나 흥미와 관심을 끄는 기사 제목이나 간단한 이슈, 정보 위주로 뉴스를 접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p.65). 따라서 뉴스 이용자가 최소한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할 때는 기사 제목이 이끌어내는 유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준호 2015: 253). 이러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포털을 통한 뉴스 제목은 연성화(최현미 1991; 임태섭 1994; 이재원 2008; 방영덕 & 박재영 2009; 최영 외 2010; 김위근 외 2013; 이준호 2015)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뉴스캐스트에서는 선정성과 관련된 뉴스 제목의 변경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위근 2014: 13). 포털을 통한 뉴스 제목의 연성화 및 선정성은 스포츠, 연예뉴스, 사회뉴스 등 주로 선정적인 뉴스 중심으로 서비스(박광순, 안종목 2006)되는 포털 뉴스 특유의 유통 관행과도 맞

5) 우리나라의 ‘포털’이라는 용어 대신 해외에서는 ‘검색엔진(search engine)’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구글과 네이버의 프론트 페이지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을 바로 알 수 있다.

달아 있다. 그리고 인터넷 뉴스 미디어가 포털 뉴스서비스를 통한 뉴스 유통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인터넷에서 선정적인 연성뉴스가 과잉 유통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김위근 2014: 13). 이제, 다음 항에서는 이러한 포털 뉴스의 연성화가 한국 통신사 헤드라인의 연성화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2.2. 한국 통신사 헤드라인의 연성화와 쌍따옴표 저널리즘

우리가 2.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 “특히 포털 뉴스 서비스의 등장은 뉴스의 유통과 소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재신 외 2009: 356). 전통적으로 뉴스 통신사는 ‘News Agency’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뉴스를 수집하고 기사를 작성해서 신문사나 방송국, 정보기관 등에 공급하는 “뉴스 도매상 (Boyd-Barrett 1998: 1)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뉴스 통신사<sup>6)</sup>가 뉴스 포털 서비스 등 새로운 뉴스 소비 창구에도 뉴스를 공급(Scott 2007)하면서 ‘뉴스 소매업’으로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남재일 & 최영재 2013). 이희원(2005)에 따르면 연합뉴스 같은 뉴스통신사의 기사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3사의 뉴스 박스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후속으로 진행된 최영재와 송현주(2007 :59)의 연구에서도 포털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뉴스는 연합뉴스 기사들(3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듯 포털 뉴스로 대표되는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연합뉴스 등의 뉴스통신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뉴스 소매업을 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교도통신(今井克 2004: 56)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연합뉴스와 교도통신을 비교 연구한 김관규와 김충식(2011)의 연구에서도 교도통신<sup>7)</sup>

- 6) 한국의 뉴스 통신사는 연합뉴스와 뉴스스가 있지만, 공영 뉴스 통신사는 ‘연합뉴스’이다. 2003년 4월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면서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박용구 2009: 92). 본고에서는 뉴스 통신사를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로 한정해서 분석·기술하기로 한다.
- 7) 교도통신은 아시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신문 등 가맹사의 통제력하에 운영되고 있어 가맹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업에 진출하지 않고 있다(김관규 & 김충식 2011: 6). 왜냐하면 교도통신은 가맹사의 분담금에 의해 운영되는 조합주의 통신사이기때문이다(ibid., 21). 현재는 자회사인 ‘47News’(주식회사 전국 신문 넷가 운영하는 지방지 연합 사이트. 2006년 12월 24일 개설. 사이트 주소는 www.47news.jp.)를 통해서

신문과 방송 이외에는 정부 기관, 외국 신문에만 뉴스를 제공할 뿐, 무가지와 인터넷 포털 등에는 뉴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이 연합뉴스와의 차별점임을 확인해주고 있다(p.6).

한국의 뉴스통신사가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는 주요 행위자가 되면서(조화순 외 2012: 21) 통신사는 포털 이용자의 집단적 특성과 뉴스 소비행태를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과거 뉴스 소재의 역할에 충실해 오던 통신사 기사가 이제는 저널리즘의 성격이 가미되어 일반 소비자를 염두에 둔 기사까지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이재신 외 2009: 373). 반현과 권현순(2007)의 연구에 따르면 종이신문의 경우 정보 추구 욕구가 높은 집단이 많이 이용하는 반면,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의 경우 오락 추구 집단이 이용하는 경우가 높다. 조화순 외 (2012)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뉴스 수용자의 선호가 연성뉴스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p.22). 특히, 뉴스통신사와 전통 신문과의 관계는 이전에는 주 고객 관계에서 최근에는 경쟁상대로 변화하고 있다(김관규 & 김충식 2011: 15). 이러한 저널리즘 생태계의 지형 변화가 연합뉴스의 헤드라인이 교도통신 헤드라인에 비해 연성화된 배경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성화의 일환으로 헤드라인에 직접인용이 남용되는 이른바 ‘쌍따옴표 저널리즘’이 종합 일간지뿐만 아니라 통신사인 연합뉴스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2.3. 기능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헤드라인의 텍스트 타입과 번역

### 2.3.1. 기능주의 번역이론과 헤드라인 번역

1970년대~80년대 등장한 기능주의 번역이론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주의 번역이론은 텍스트와 텍스트 결과물(번역)의 기능이나 기능들에 초점을 맞춘다(Nord 1997: 1).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은 원천 텍스트(ST)에 초점을 맞춘 정태적인 언어학적 접근법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 기능주의 학자 가운데, 특히 페르미어(Vermeer)는 원문의 역할을 번역을 위한 ‘정보의 제시(offer of information)’로 한정하면서 ST의 지위를 강등<sup>8)</sup>시켰다.

만 인터넷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 8) 페르미어는 원천텍스트의 ‘폐위(dethronement/Entthronung)’라는 술어를 사용한다. 원천 텍스트는 더 이상 번역자의 결정에 있어 최우선적인 기준이 아니며, 단지 번역자가

둘째, 기능주의는 “(통)번역을 전이(transfer)의 한 유형으로 본다 (Vermeer, 1983b: 49). 기능주의 학자들에게 있어서 전이는 등가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등가가 ST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전이는 TL 문화의 의사소통 기능을 목표로 한다. 즉, 번역은 ST와 TT 간의 등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내적 합치성(intertextual coherence)(Reiss and Vermeer 1984: 113, in Nord 1991: 24) 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텍스트 내적 합치성이란 수신자가 목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텍스트가 수신되는 의사소통 상황과 문화에서 의미가 통해야 함을 의미한다(Pöchhacker 1995: 34 참조). 셋째, 기능주의 접근법에서는 번역(translation)이라는 술어보다는 번역하기(translatng)라는 술어를 선호한다. 번역하기는 행위(action)를 강조한 개념으로, 행위는 “의도”적으로 사물의 어떤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의 변화나 이행(transiton)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von Wright 1968: 38, in Nord 1997: 16). 행위로서의 번역하기는 의도적인 문화 간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이때의 번역가는 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번역가는 ST에 대한 실제 수신자인 동시에 TL 문화의 최종 수신자에게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해주는 텍스트 생산자이기도 하다. 상기 세 가지 특징을 관통하는 공통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번역가는 TL 문화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번역에 개입을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뉴스 헤드라인과 일본 뉴스 헤드라인은 같은 저널리즘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다른 관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쌍따옴표 저널리즘 관행으로 불리는 한국 뉴스 헤드라인에 대한 일본어 번역을 정태적인 등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실제 번역 텍스트 분석 결과 직접인용으로 작성된 한국 뉴스의 헤드라인은 한일번역에서 상당 부분 번역자의 개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TL 문화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주의적 접근법의 ‘전이’로 설명할 수 있다.

### 2.3.2. 레이스(Reiss)의 텍스트 타입과 헤드라인 기능

대표적인 기능주의 번역이론가인 레이스(1977/89; 113-14, in Munday 2006: 97-100)는 다음 표와 같이 언어 기능에 따라 텍스트 타입을 정보적 텍스트, 표현적 텍스트, 작용적 텍스트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능적 특징에 따른 번역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텍스트 타입에 따른 기능적 특징과 번역 전략(Reiss 1971. in Munday)

텍스트 타입	정보적(informative)	표현적(expressive)	작용적(operative)
언어 기능	정보적 (사물(object)과 사실 존중)	표현적 (발신자의 태도 존중)	소구적 (텍스트 수용자에 호소)
언어 차원	논리적	미학적	대화적
텍스트의 초점	내용 중심	형식 중심	소구 중심
TT	지시적 내용을 전달해야 함	미학적 형식을 전달해야 함	원하는 반응을 유도해야 함
번역 전략	‘평이한 산문체’, 필요에 따라 명시화	‘(저자와의) 동일시’ 전략, ST 저자의 관점에서 번역	‘적응성(adaptive)’, 효과의 등가

〈표 1〉이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 타입의 특징을 간단히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Reiss(1977/89; 108-9, in Munday 2006: 98-99).

1. ‘단순한 사실에 대한 의사소통’: 정보, 지식, 의견 등을 전달하는 경우, 이 때 사용되는 언어가 논리적이거나 지시적이고, 그 내용 또는 주제가 의사소통 행위의 중심인 경우, 그 텍스트 타입은 **정보적**이다.
2. ‘창조적 작문’: 원전의 저자가 언어의 미학적 차원을 활용하는 경우, 저자 또는 발신자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의 형식이 가장 두드러지는 경우, 그 텍스트 타입은 **표현적**이다.
3. ‘행위적 반응 유발’: 소구적 기능의 목표는 텍스트의 독자 또는 수신자에게 소구하거나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끔 설득하는 것이다. 대화적인 언어 형식을 취하며, 그 텍스트 타입은 **작용적**이다.

레이스(1976:20)가 정보적 텍스트의 가장 일반적인 예로 뉴스 기사와 사용 설명서를 들고 있는(in Chesterman 1989: 105) 것처럼 신문 기사는 대표적인 정보적 텍스트이다. 그렇다면 뉴스 기사의 제목인 헤드라인은 레이스의 텍스트

이용하는 다양한 정보원 중 하나일 뿐이다(Nord 1997: 25)

9) 페르미어와 레이스(Reiss)의 설명에 따르면, 기능주의 접근법에서의 의도는 행위의 기능(function of the action)과 동일시된다.

타입 중 어디에 해당할까? 헤드라인은 그 자체가 독립된 장르로 또는 그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 타입으로 간주된다(Sabir 2018: 225). 기사의 본문 내용을 압축한 헤드라인은 정보적 텍스트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은유(metaphor)가 사용된 헤드라인<sup>11)</sup>이라면 표현적 텍스트의 성격을 일부 포함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독자의 읽기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헤드라인에 직접인용이 사용된 경우는 작용적 텍스트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표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용적 텍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용자와의 ‘대화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점이다. 단, 직접인용이 사용된 헤드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본문에 있는 직접인용을 헤드라인에 그대로 제시한 경우는 정보 전달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정보적 텍스트로 분류할 수 있다.

### 3. 분석

#### 3.1. 분석 방법 및 절차

이번 장에서는 앞서 2.2에서 밝힌 연합뉴스 헤드라인의 연성화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 연합뉴스 헤드라인에서 직접인용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 3가지 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우선 연합뉴스에 직접인용 헤드라인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종합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와 비교 분석한다. 연합뉴스 헤드라인의 직접인용 사용 빈도와 형태를

10) 상기 텍스트 타입은 완전히 분리되는 기능이 아니라, 텍스트에 따라서는 겹칠 수도 있고 복수의 기능들이 하나의 텍스트에 나타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헤드라인의 가장 두드러진 기능을 기준으로 텍스트 타입으로 분류할 것이다.

11) [예: 일본, 7월 북한과 몰래 접촉 ... 아베 **뒤통수**에 미국 격양(중앙일보, 2018.08.30.)→ ‘뒤통수’라는 은유 표현을 사용.]

단, 신문 장르는 문학작품과 달리 은유의 사용이 미학적인 관점을 중시하거나 형식 지향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소구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표현적 텍스트로서의 기능은 약하다. 본고에서는 헤드라인에 사용된 은유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쌍따옴표 저널리즘으로 평가받는 종합 일간지 헤드라인과 비교함으로써, 헤드라인의 연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연합뉴스 헤드라인을 일본의 교도통신 헤드라인 및 일본 종합일간지(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신문)과 구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연합뉴스의 통신사로서의 기능이 강화, 또는 약화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 연합뉴스 헤드라인에 대한 한일번역을 레이스의 텍스트 타입을 바탕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상기 분석 절차 가운데, 우선 연합뉴스 헤드라인의 직접인용 사용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 현재까지 연합뉴스의 국제기사 헤드라인의 직접인용을 살펴보았다. 3.2절에서는 그 중 일정 기간의 기사를 발췌해서 연합뉴스 헤드라인의 사용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헤드라인을 분류하기로 한다.

<표 2> 헤드라인 분류

헤드라인		
(1)직접인용 없는 헤드라인	Φ	
(2)직접인용 있는 헤드라인	① 직접인용(본문)→직접인용(헤드라인)	DQ <sup>12)</sup> →DQ
	② 간접인용(본문)→직접인용(헤드라인)	IQ <sup>13)</sup> →DQ
	③ 본문에 없는 내용(해석)→직접인용(헤드라인)	Φ→DQ

<표 2>를 바탕으로 직접인용구가 있는 헤드라인을 레이스의 텍스트 타입으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본문의 직접인용구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DQ→DQ)라면 ‘정보적 텍스트’에 해당한다. 반대로, 헤드라인의 직접인용구가 본문의 간접인용구를 변경해서 사용한 경우(IQ→DQ)이거나 본문에 없는 내용을 데스크나 기자가 해석해서 직접인용으로 변경한 경우(Φ→DQ)에는 수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작용적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즉, 헤드라인과 본문의 일치도에 따라 정보적 텍스트와 작용적 텍스트를 분류할 수 있다.

12) Direct Quotation: 직접인용

13) Indirect Quotation: 간접인용

### 3.2. 연합뉴스 헤드라인과 번역 분석

#### 3.2.1. 연합뉴스 헤드라인의 직접인용 형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 현재까지의 분석 기간 동안, 연합뉴스의 국제 기사는 하루 평균 120개~160개<sup>14)</sup>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고, 그 가운데 평균 40~60개(약33~37%)의 헤드라인이 직접인용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이기 위해 본고에서는 무작위로 하루 분량의 ‘국제’ 뉴스를 추출했고, 그 가운데 직접인용 헤드라인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아래 <표 4>는 2019년 4월 30일자 연합뉴스 ‘국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조사한 내용이다. 총 162개의 국제 기사가 게재되었고, 그 가운데 직접인용이 사용된 헤드라인은 61개(약 38%)였다.

<표 3> 연합뉴스 헤드라인의 직접인용 형태

직접인용형태	사용빈도	예문
① DQ→DQ (정보적 텍스트)	20개 (약33%)	트럼프, 퇴위 아키히토에 메시지... “ <u>미일 동반자관계 지속 기대</u> ” 본문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u>동맹국인 일본과의 동반자 관계와 협력의 전통이 새로운 시대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u> ”고 덧붙였다.]
② IQ→DQ (작용적 텍스트)	26개 (약43%)	日 언론 “ <u>안중근 기념관 ‘조용한’ 재개관, 중국의 일본 배려</u> ” 본문 [중국이 지난달 하얼빈(哈爾濱) <u>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별다른 행사나 보도 없이 ‘조용히’ 재개관한 것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u> 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③ Φ→DQ (작용적 텍스트)	15개 (약25%)	“ <u>내 짐은 어디에...</u> ” 작년 여객기 수하물 분실 2천 480개 본문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 공항에 내렸는데 수하물 카운터에서 내 짐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항공사가 사라진 가방을 찾아 뒤늦게 호텔로 갔다 주기도 하지만, 수하물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여행 내내 불편을 겪기도 하고 영영 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항공사 측의 ‘취급 부주의’(Mishandling)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분실되는 수하물이 작년 한 해 2천500만개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1개	

14) 주말에는 약 80개

우선, ① DQ→DQ의 예문에서 직접 인용 부분인 [미일 동반자관계 지속 기대]는 본문 기사의 직접인용 부분 [동맹국인 일본과의 동반자 관계와 협력의 전통이 새로운 시대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를 참조해서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① DQ→DQ 패턴은 상기 예문과 같이 본문 기사의 직접인용 내용을 참조하거나 패러프레이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본문의 간접인용을 헤드라인의 직접인용으로 사용한 ② IQ→DQ의 예문을 보면, 취재원 또는 인용 주체를 밝힌(“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본문의 간접인용 내용[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별다른 행사나 보도 없이 ‘조용히’ 재개관한 것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을 헤드라인에서 직접인용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② IQ→DQ의 헤드라인 형태는 직접인용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③ Φ→DQ의 예문 중 직접인용구 [내 짐은 어디에...]는 본문 기사의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헤드라인을 보면, 마치 수하물을 분실한 승객에 대한 인터뷰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사의 본문에서 인터뷰 내용은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본문에 없는 내용을 기사나 데스크가 해석해서 직접인용구로 사용하는 헤드라인이 한국 뉴스 매체에서는 다수 발견된다<sup>15)</sup>. 이러한 헤드라인 형태는 ‘헤드라인 연성화’의 대표적인 예로, 독자와 생생하게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헤드라인 형태는 기사나 데스크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만큼, 헤드라인 저널리즘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의 직접인용 사용 비율이 42.1%(황치성 2008)인 점을 상기해보면, 연합뉴스 헤드라인 역시 직접인용 사용 비율(평균 33~37%)이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다음 표를 통해 연합뉴스 헤드라인의 직접인용 형태가 쌍따옴표 저널리즘으로 불리는 종합일간지의 헤드라인과 별 다른 차이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 3.2.2. 연합뉴스 헤드라인과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비교

다음 <표 4>에서는 동일한 재해뉴스기사(멕시코 여객기 추락사고: 2019년

15) 이론적 배경 참조

8월 1일)에 대해 연합뉴스와 한국의 대표 3대 종합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헤드라인이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해보았다. 비교·분석 대상을 재해뉴스로 정한 이유는 국제뉴스 중에서도 재해 관련 기사는 통신사의 정보성과 속보성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통신사들은 제휴 언론사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헤드라인과 기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제휴 언론사들은 이를 받아서 그대로 내보내거나 약간의 편집을 거쳐 내보낸다. 따라서 통신사의 재해관련 뉴스 헤드라인은 본문과의 일치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표 4> 연합뉴스와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비교

	헤드라인	형태
연합뉴스	(1)멕시코 여객기 이륙 직후 추락...“ <b>탑승객 모두 생존</b> ” 2018-08-01 본문[이 사고로 중상자를 포함, 최소한 80여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b>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b> ]	IQ→DQ
	(2)멕시코 북부서 아에로멕시코여객기 추락...“ <b>아직 사망보고 없어</b> ” 2018-08-01 본문[...두랑고주 시민보호청 대변인은 이로 인한 <b>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b> 밝혔다.]	IQ→DQ
조선일보	(1)멕시코 북부서 ‘아에로멕시코’여객기 추락 85명 부상 2018-08-01	Φ
	(2)멕시코 북부서 아에로멕시코 여객기 추락...“ <b>아직 사망보고 없어</b> ” 2018-08-01	Φ→DQ
중앙일보	(1)멕시코서 여객기 이륙 직후 추락...100여명 전원 생존 2018-08-01	IQ→DQ
	(2)아에로멕시코 항공기, 멕시코 북부서 추락...“ <b>85명 부상</b> ” 2018-08-01 본문 [멕시코 북부 두랑고주에서 31일(현지시간) 국영 항공사 아에로멕시코 항공기가 추락해 승객 <b>85명이 부상</b> 했으며 사망자는 없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IQ→DQ
동아일보	(1)멕시코 여객기 추락에도 다행히 사망자 ‘0’명...이유는? 2018-08-01	Φ
	(2)멕시코 여객기 추락, 사망자는 없고 37명 경상에 그쳐 2018-08-01	Φ

연합뉴스의 예문 (1)의 헤드라인은 본문 가운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

악됐다]라는 간접인용문을 [탑승객 모두 생존]으로 패러프레이즈해서 직접인용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탑승객 모두 생존]은 본문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와 얼핏 비슷한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실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갖고 있다. 헤드라인의 직접인용 내용이 모든 조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전달되는 반면, 본문 기사는 사고에 대한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 중임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본문의 간접인용을 패러프레이즈한 후 헤드라인의 직접인용(IQ→DQ)으로 사용하는 연합뉴스 예문(1)은 후술할 연합뉴스 예문 (2) 등 다른 ‘IQ→DQ’ 헤드라인에 비해 본문 일치도 면에서 느슨하다. 통신사의 속보성 기사는 다른 뉴스 매체의 원천 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sup>16)</sup> 객관적 사실 보도에 대한 헤드라인의 패러프레이즈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연합뉴스 예문 (2)와 이를 그대로 받아서 내보내고 있는 조선일보의 예문 (2)의 헤드라인 직접인용구 [아직 사망보고 없어]는 본문의 간접인용[...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을 헤드라인에서 직접 인용으로 바꿔서 전달(‘IQ→DQ’)하고 있지만, 연합뉴스 예문(1) 헤드라인에 비해 객관적이고 본문과 헤드라인의 일치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중앙일보의 예문(2) 헤드라인의 직접인용구[85명 부상] 역시, 본문의 간접인용 [승객 85명이 부상했으며 사망자는 없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내용을 침착해서 사용하고 있어, 헤드라인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예문 (1)과 (2)에는 모두 직접인용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재난 뉴스 헤드라인(예: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고위 관리 “탑승 189명 전원 사망한 듯 2018년 10월 30일: ‘DQ→DQ’) 등에서는 헤드라인의 직접인용 사용을 흔하게 볼 수 있다.

### 3.2.3. 교도통신과 일본종합일간지 헤드라인 비교

지금까지 <표 3>과 <표 4>를 통해 연합뉴스 헤드라인의 쌍따옴표 저널리즘을 확인했다. 이제부터는 한국의 통신사인 연합뉴스 헤드라인이 일본의 통신사인 교도통신 헤드라인과 쌍따옴표 저널리즘 관점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

16) 실제로 이 연합뉴스 기사는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에서 그대로 받아서 게재.

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 <표 4>와 동일한 주제의 헤드라인이 교도통신에서는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본의 종합일간지와도 동일주제에 대한 헤드라인을 비교함으로써 일본 뉴스 매체 전반의 직접인용 사용 양태가 한국과 어떻게 같은지, 또는 다른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표 5> 일본 통신사와 종합일간지의 헤드라인 비교

	헤드라인	형태
共同通信 (교도통신)	(1)メキシコ旅客機が不時着 49人負傷、離陸直後に突風 (BT: 멕시코여객기가 불시착 49명 부상, 이륙직후에 돌풍) 2018年08月01日	Φ
	(2)メキシコ機墜落で約 20人負傷と報道 (BT: 멕시코기 추락으로 약 20명 부상이라고 보도) 2018年08月01日	Φ
朝日新聞 (아사히)	(1)アエロメヒコ機墜落 103人搭乗、死者なし メキシコ 아에로메히코기 추락 103명 탑승, 사망자 없음 멕시코 2018年8月1日	Φ
	(2)アエロメヒコ機墜落、離陸時に暴風か「乗客は自力脱出」 (BT: 아에로메히코기 추락, 이륙 시에 폭풍 있어나? “승객은 자력 탈출”) 2018年8月1日 본문[操縦士が重傷を負ったものの「乗客の大半は自力で脱出した」という] BT[조종사가 중상을 입었으나 “승객 대부분은 자력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DQ→DQ
読売新聞 (요미우리)	(1)メキシコ旅客機、緊急着陸に失敗…85人けが (BT: 멕시코여객기, 긴급착륙에 실패...85명 부상) 2018年08月01日	Φ
	(2)メキシコ旅客機が緊急着陸失敗、炎上も死者なし (BT: 멕시코여객기가 긴급착륙 실패, 불타오르기도 사망자 없음) 2018-08-01	Φ
毎日新聞 (마이니치)	(1)旅客機墜落85人けが 激しい嵐、離陸数分後 (BT: 여객기 추락 85명 부상 강한 폭풍, 이륙 몇 분 후) 2018年8月1日	Φ
	(2)101人搭乗の旅客機墜落「死者いない」 (BT: 101명 탑승 여객기 추락 “사망자 없다”) 2018年8月1日 본문[地元当局はツイッターで「死者はいない」と明らかにした。] BT[지역당국은 트위터를 통해 “사망자는 없다 고 밝혔다.]	DQ→DQ

교도통신은 연합뉴스와 달리 가맹사의 통제력 하에 운영되고 있어 가맹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업에 진출하지 않고 있다(김관규 & 김충식 2011;

6). 교도통신의 기사는 독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소매상의 역할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맹사에 전달하는 도매상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도통신의 헤드라인은 포털 사이트에 기사를 실고 있는 연합뉴스의 헤드라인처럼 수용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장치가 필요 없다. <표 5>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도통신의 헤드라인에서는 직접인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의 종합일간지에도 직접인용을 사용한 헤드라인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일본 뉴스매체의 직접인용 헤드라인의 양태를 보면 한국 뉴스매체의 헤드라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5>에서 직접인용구를 사용한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의 예문을 보면 이러한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아사히 신문의 (2) 헤드라인 직접인용 [乗客は自力脱出(승객은 자력 탈출)]은 본문의 직접인용(乗客の大半は自力で脱出した)이라고(“승객의 대부분은 자력으로 탈출했다”고 한다))을 참조해서 사용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의 예문 (2)역시 본문의 직접인용구 [死者はいない(사망자는 없다)]에서 주격 조사 ‘は(는)’만을 삭제하고 그대로 헤드라인 직접인용구([死者いない(사망자 없다)]로 사용하고 있다. <표 5>와 같은 재해뉴스의 경우에는 상기 예문들처럼 직접인용을 사용한 헤드라인은 본문의 직접인용을 참조해서 직접인용으로 사용한다(DQ→DQ). 한국 뉴스매체의 헤드라인처럼 본문의 간접인용을 헤드라인에서 직접인용으로 사용하거나, 본문에 없는 내용을 데스크나 기자가 해석해서 헤드라인의 직접인용구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문과 헤드라인의 일치도는 한국 뉴스매체에 비해 일본 뉴스매체가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한국의 통신사와 일본의 통신사만 놓고 보면, 본문과 헤드라인의 일치도 차이는 더욱 더 벌어지게 된다. 교도통신은 헤드라인에서 직접인용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반면, 연합뉴스 헤드라인은 일간지 수준으로 직접인용구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3.2.4. 연합뉴스 한일번역 분석

이번 절에서는 연합뉴스의 쌍따옴표 저널리즘이 한일번역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레이스의 텍스트 타입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ST와 TT의 텍스트 타입에 변화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북러정상회담’ 등 북한 관련 국제기사를 분석 대상 주제로 삼았다. 북한 관련

기사는 한국과 일본 매체 모두의 주목을 끄는 주제이고, 회담 당사국뿐만 아니라 이해당사국(미국, 일본, 중국 등) 정상들의 입장이나 주장이 본문에서 직접 인용 형태로 많이 제시되었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번역문 분석 기간은 ‘북러정상회담’ 개최 전후인 2019년 4월 23일~4월 27일의 5일간으로 잡았다. 분석 결과 관련 기사는 총 103개였고, 그 중 헤드라인에서 직접인용이 사용된 경우는 59건이었다. 직접인용 헤드라인을 다시 본고의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누면 (1)직접인용→직접인용(DQ→DQ)이 27개, (2)간접인용→직접인용(IQ→DQ)이 20개, (3)본문 없는 내용(해석)→직접인용(Φ→DQ)이 12개였다. 이 기사 중 일본어로 번역된 ST는 총 14개였다. 그 중 (1)Φ→DQ에 해당하는 번역문은 1건, (2)IQ→DQ에 해당하는 번역문은 5건, (3)DQ→DQ에 해당하는 번역문은 8건이었다. 대표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표 6> 연합뉴스 한일번역 분석

ST	TT	예문	
		ST	TT
Φ→DQ	①ST의 DQ→TT에서 사라진 경우 (1개)	러시아 신문 “ <b>김정은-푸틴, 25일 극동연방대서 정상회담</b> ” 2019-04-23 (작용적 텍스트)	口朝首脳会谈 25日にウラジオストクで=ロシア紙 (BT:북러정상회담 25일에 블라디보스톡에서=러시아신문) 2019-04-23 (정보적 텍스트)
	②ST의 DQ→TT에서 살려진 경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IQ→DQ	①ST의 DQ→TT에서 사라진 경우 (4개)	러 언론 “ <b>김정은 전용열차 북러 국경 넘어 하산역 도착</b> ” 2019-04-24 (작용적 텍스트)	金正恩氏の特別列車 国境越えロシア・ハサンに到着 (BT:김정은씨의 특별열차 국경 넘어 러시아 하산에 도착) 2019-04-23 (정보적 텍스트)
	②ST의 DQ→TT에서 살려진 경우 (1개)	외교부 “ <b>북러정상회담, 비핵화 협상 긍정적 발전에 기여 기대</b> ” 2019-04-23 (작용적 텍스트)	口朝首脳会谈 「非核化交渉発展への寄与と期待」=韓国政府 (BT:북러정상회담 “비핵화협상 발전에 기여 기대 =한국정부) 2019-04-23 (작용적 텍스트)

D Q → DQ	①ST의 DQ→TT에서 사라진 경우 (2개)	金 “ <b>세계초점 한반도 집중·푸틴 “北노력 환영</b> ”...정상회담 시작 2019-04-25 (정보적 텍스트)	口朝首脳が会谈 非核化問題や関係発展策を集中協議か (BT:북러정상회담 비핵화문제와 관계발전방안을 집중 협의?) 2019-04-25 (정보적 텍스트)
	②ST의 DQ→TT에서 살려진 경우 (6개)	김정은 “ <b>한반도 평화, 美 차후 태도에 좌우...모든 상황 대비</b> ” 2019-04-25 (정보적 텍스트)	金正恩氏 プーチン氏に「朝鮮半島の平和、米国の態度に左右」 (BT:김정은씨 푸틴씨에게 “조선반도의 평화, 미국의 태도에 좌우”) 2019-04-25 (정보적 텍스트)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연합뉴스 헤드라인의 한일번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ST의 헤드라인과 본문의 일치도가 높을 때(DQ→DQ), TT에서도 직접인용문을 살려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ST의 헤드라인과 본문의 일치도가 낮을 때(Φ→DQ 및 IQ→DQ)는 대체로 TT에서 직접인용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 2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연합뉴스 한일 번역가는 ST의 원문 헤드라인에 대해 단순한 등가 번역전략을 추구하지 않고,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TT의 저널리즘 문화를 반영하면서 번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직접인용구가 있는 헤드라인에 대해서 번역가는 한국의 쌍따옴표 저널리즘 관행을 따르지 않고, 본문과 헤드라인과의 일치도를 신경 쓰면서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TT-Oriented’ 번역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도통신이나 일본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처럼, 본문의 직접인용구를 헤드라인에 적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헤드라인에서 직접인용구를 제거하는 번역 양상을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ST가 ‘DQ→DQ’ 일 경우에는 TT 관행과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번역을 거치면서 TT에서 ST의 텍스트 장르가 보존되었다(정보적 텍스트→정보적 텍스트). 한편, ‘Φ→DQ’와 ‘IQ→DQ’의 경우에는 TT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없는 헤드라인 형태이기 때문에, 번역을 거치면서 ST의 텍스트 장르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작용적 텍스트→정보적 텍스트). 다음 <표 7>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7> 헤드라인 직접인용 번역에 따른 텍스트 타입 변화

	ST	TT
헤드라인 형태 텍스트 타입	DQ→DQ 정보적 텍스트	DQ→DQ 정보적 텍스트
헤드라인 형태 텍스트 타입	∅→DQ	∅→IQ
	IQ→DQ	IQ→IQ
	작용적 텍스트	정보적 텍스트

#### 4. 나가기

지금까지 본고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분석 절차에 따라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연합뉴스의 쌍따옴표 저널리즘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9개월 간 연합뉴스의 헤드라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합뉴스 헤드라인에는 하루 평균 33~37%의 비율로 직접인용이 사용되었다. 이 빈도는 종합일간지의 직접인용 사용 비율(42.1%)에 근접한 수치로 연합뉴스 헤드라인의 직접인용 비율 역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연합뉴스 직접인용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본고의 분류 기준에 따라 연합뉴스 헤드라인과 종합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헤드라인을 비교해보았다. 연합뉴스의 직접인용 형태 역시 종합일간지 헤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간접인용을 헤드라인에서 직접인용으로 바꿔 사용(IQ→DQ)하는 등, 헤드라인과 본문의 일치도가 낮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합뉴스 헤드라인의 직접인용은 양적인 면에서나 형태적인 면에서 볼 때, 쌍따옴표 저널리즘 관행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합뉴스가 통신사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에서 벗어나 이렇게 쌍따옴표 저널리즘 관행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저널리즘 학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해보았다. 연합뉴스 헤드라인의 연성화 및 쌍따옴표 저널리즘은 검색 이외에 콘텐츠 패키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 포털의 구조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는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포털 내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고, 이 이용자들은 뉴스 역시 포털에서 소비한다. 포털의 특성상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뉴스 제목은 경쟁적으로 연

성화된다. 연합뉴스는 이들 포털에 가장 많은 양의 뉴스를 제공하면서도 포털에서는 종합일간지 및 다른 뉴스 매체들과 헤드라인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연합뉴스 헤드라인의 자극화 및 연성화가 가속화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한국의 뉴스 유통구조가 연합뉴스 헤드라인을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시키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도매상으로서의 연합뉴스의 위상과 정체성이 퇴색되게 된다. 이는 가맹사의 철저한 통제 하에 통신사로서의 도매상 역할에 충실한 교도통신과 대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헤드라인과 비교한 교도통신 및 일본 종합일간지(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헤드라인은 직접인용이 헤드라인에 사용되더라도 대부분 본문의 직접인용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DQ→DQ)였다. 특히, 교도통신 헤드라인에서는 직접인용구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어 연합뉴스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의 한일번역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의 직접인용구 헤드라인을 번역하는 번역가는 적극적인 번역 개입을 통해 TT 저널리즘에 적합한 ‘TT-Oriented’ 번역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의 ST와 TT는 언어학적인 등가 개념으로 서로 환원되지 않는다. TT 문화권의 뉴스 매체는 통신사와 일간지를 불문하고 헤드라인과 본문의 일치도가 높은(DQ→DQ) 정보적 텍스트들이다. 반면, ST인 연합뉴스의 헤드라인은 본문과 일치되지 않는 직접인용 형태(∅→DQ+IQ→DQ)가 50% 이상을 차지했고, 이들 헤드라인은 작용적 텍스트로 분류할 수 있다. 번역가는 ST가 DQ→DQ인 경우에는 큰 개입 없이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ST가 ∅→DQ 유형이거나 IQ→DQ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번역 개입을 통해 직접인용을 제거해 간접인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자의 적극적인 개입은 ST와 TT 헤드라인의 텍스트 유형 변화(ST의 작용적 텍스트→ TT의 정보적 텍스트)를 가져온다.

#### 참고문헌

강수정 (2011) 「중국 뉴스매체의 한국뉴스 편역보도에 관한 연구 -<참고소식>의 한국뉴스 편역 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5(1): 1-27.

강지혜 (2008) 「번역기사의 제목에 관한 연구: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 관련 번역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9(2): 7-43.

김관규 · 김충식 (2011) 「디지털 미디어 융합환경에서의 뉴스통신사 구조변화: 한국의 연합뉴스와 일본의 교도통신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18(2): 5-35.

김동규 (2004) 「선거문화 선도해야 할 론이 정쟁의 도구로 전략」, 『신문과 방송』 3:13-16.

김병홍 (2007) 「이데올로기 실현을 위한 신문기사 제목의 언어 전략: 개헌 관련 텍스트를 중심으로」, 『우리말 연구』20: 281-305.

김위근 (2014) 「포털 뉴스서비스와 온라인 저널리즘의 지형: 뉴스 유통의 구조 변동 혹은 권력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66: 5-27.

김춘식 (2010) 「이명박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발언’ 관련 보도 분석」, 『관훈저널』 117: 8-16.

김한식 (2010) 「가독성의 요인별 표현 분석을 통한 번역전략 연구: 한일 기사문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대민 (2015) 「사실기사의 직접인용에 대한 이중의 타당성 문제의 검토: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4대강 추진 논란 기사에 대한 뉴스 정보원 연결망 및 인용문 분석」, 『한국언론학보』 59(5): 121-151.

박미정 (2013) 「신문사의 이데올로기와 헤드라인 번역: 한일번역과 한영번역 비교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7(3): 231-251.

박용구 (2006) 「특집 좌담, 이념논쟁을 둘러싼 언론보도에 대해」, 『관훈저널』: 82-107.

박재영 (2006) 「뉴스 평가 지수 개발을 위한 신문 1면 머리기사 분석」, 『한국의 뉴스미디어 2006』: 147-220.

박재영 · 이완수 (2007) 「인용(quotation)과 취재원 적시(attribution)에 대한 한미 신문비교」, 『한국언론학보』 51(6): 439-468.

반현 · 권영순 (2007) 「포털 뉴스와 기존 뉴스 매체의 이용행위에 대한 상관 관계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51-1: 399-426.

방영덕 · 박재영 (2009) 「인터넷 뉴스의 기사선택과 제목편집: 미디어다음과 조선닷컴의 경우」, 『한국방송학보』 23(3): 86-124.

성동규 · 김인경 · 김성희 · 임성원 (2006) 「포털사이트의 뉴스 콘텐츠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0(5): 133-143.

양승목 · 이준웅 · 송현주 (2006) 「531지방선거 보도 내용분석 연구: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윤영태 (2006) 「폭력 갈등 대립 등 내용보다 증폭된 제목 달아: 무엇이 불량 제목인가」, 『신문과 방송』: 26-29.

원효설 (2018) 「한국 인터넷 신문 헤드라인의 중국어 번역 양상 연구: <동아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2: 123-142.

이건호 · 고흥석 (2016)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문의 인용 적절성 비교: 술어 객관성과 취재원 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3): 178-205.

이상길 (2003) 「언어의 분열, 분열의 언어-1987년 이후의 미디어 권력」, 『당대 비평』 24

이재원 (2008) 「신문기사 제목과 본문 사이의 텍스트언어학 전략들」, 『언어와 언어학』 41: 185-204.

이준웅 · 최영재 (2005) 「한국 신문위기의 원인: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그리고 공정성 위기」, 『한국언론학보』 49(5): 5-35.

이준웅 · 양승목 · 김규찬 · 송현주 (2007) 「기사 제목에 포함된 직접인용부호 사용의 문제점과 원인」, 『한국언론학보』 51(3): 64-90.

이준호 (2015) 「헤드라인 저널리즘: 신문과 포털 기사제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19(1): 249-80.

임태섭 (2001) 「방송언어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방송프로그램 언어분석 연구』: 35-79.

정태철 (1995a) 「신문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문제목의 문제점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16: 247-75.

정태철 (1995b) 「제목소비자의 증가와 신문제목의 이해도」, 『한국언론학보』 33: 203-28.

최영 · 방창신 · 고민경 (2010) 「온라인 뉴스의 제목달기 분석: 네이버 뉴스 캐스트의 헤드라인 특성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8: 115-40.

최영재 (2004) 「관례적인 언론사 보도과정에서의 탈피: 국제보도의 진실험」, 『국제관계연구』 9(1): 231-54.

- 최영재 · 남재일 (2013) 「텔레비전 뉴스 포맷의 국가간 비교 연구」, 『언론과학 연구』 13(3): 661-92.
- 조화순 · 장우영 · 오소현 (2012) 「포털 뉴스의 연성화와 의제설정의 탐색」, 『정보화정책』 19(3): 19-35.
- 함수진 (2014) 「기사문 헤드라인의 장르관습과 한일 번역 - 간결성을 위한 조사 및 서술부 관습을 중심으로」, 『통번역학 연구』 18(3): 445-75.
- 황순희 (2015) 「온라인신문 기사제목의 구조와 의미: 프랑스어와 한국어 제목의 대조 분석」, 『프랑스어문교육』 48: 95-130.
- 황은하 (2014) 「언어학적 지식에 기반한 한중 뉴스 표제의 기계번역」, 『번역학 연구』 15-5: 333-62.
- 황치성 (2008) 『갈등이슈 보도의 새로운 접근』, 서울: 한국언론재단, 커뮤니케이션북스.
- Ali, Ghadya (2010) *How Arab Journalists Translate English-Language Newspaper Headlines: Case Studies in Cross-Cultural Understanding*. New York/Ceredigion: The Edwin Mellen Press.
- Anderson, Douglas & Itule, Bruce (1988) *Writing the news*. New York, NY: Random House.
- Anderson, Douglas & Itule, Bruce (2003) *News writing and reporting for today's media*. New York, NY: McGraw-Hill Education(MHE).
- Boyd-Barrett, Oliver & Rantanen, Terhi (1998) *The Globalization of News*. London: SAGE.
- Brooks Brian, Kennedy George, Moen Daryl & Ranly Don (2002) *News Reporting and Writing*, New York: St. Martin's.
- Dominick Joseph, Messere Fritz & Sherman Barry (2004) *Broadcasting, cable, the Internet and beyond: An introduction to modern electronic media*, 5<sup>th</sup> edition. New York: McGraw-Hill.
- Earl, English (1944) 'A Study of the Readability of Four Newspaper Headline Types.' *Journalism Quarterly*. 21:217-29.
- Garst, Robert. & Bernstein, Theodore (1961) *Headlines and deadlines: a manual for copy editors*. London: Colombia University Press.

- Khanjan Alireza, Amouzadeh Mohammad & Rasekh Eslami (2013) 'Ideological Aspects of Translating News Headlines from English to Persian'. *Meta*. 58(1): 87-102.
- Khodabandeh, Farzaneh (2007) 'A contrastive analysis of English and Persian newspaper headlines.' *The Linguistics Journal*. 2(1): 91-127.
- Li, Hongxia (2005) 'Rhetoric Appreciation and Translation of English News Headlines.' *Research on Foreign Language and Literature*. 6: 41-46.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trans. by Y, Jung & W, Nam (2006). Seoul: Hufs Press.
- Nord, Christiane (1991)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Manchester: St Jerome.
- Nord, Christiane (2005)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Theory, methodology, and didactic application of a model for Translation-Oriented Textual Analysis*. Second edition. Amsterdam/New York: Rodopi.
- Reiss, Katharina (1977/89) *Text types, translation types and translation assessment*, translated by A. Chesterman, in A, Chesterman (ed.) (1989): 105-15.
- Scott, Bukatman (2007) 'Cyberspace' in: Bell, David. & Kennedy, Barbara. (eds.). *The Cybercultures Reader*. New York: Routledge: 80-105.
- Shi, Xuedong (2014) 'English-Chinese News Headlines Translation from a Skopostheorie Perspective'.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4(9): 1881-85.
- Sidiropoulou, Maria (1995) 'Headlining in translation: English vs. Greek Press.' *Target*. 7(2): 285-304.
- Tuchman, Gaye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 of Objectiv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4): 660-79.
- Van Dijk, Teun (1988) *News Analysis: Case Studies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News in the Press*.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
- Vermeer, Hans (2000) 'Skopos and commission in translational action' in

Venuti, Lawrence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Routledge.  
Yonghong Wu (2017) 'Features and Translation Strategies of English News Headlines'. *Advances in Computer Science Research*. 82: 230-34.

野口崇子 (2002) 「見出しの文法—解讀への手引きと諸問題」, 『講座日本語教育』 38: 94-124.

今井克 (2004) 「共同通信社の現状と課題」, in 『日本の国際情報発信』, 東京: 芙蓉書房出版

[Abstract]

### **'Double Quotation Journalism' in Korea and Translation**

Park, Mi-J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headline of a newspaper article summarizes the content of the article, communicates the issue, and implies the importance of the article (Van Dijk, 1988). As you can see from the term 'a shopper of headlines', newspaper readers are mainly reading the headlines. In fact, the headline is used to determine the overall flow of the article content and to determine whether to read the article before readers read the article. Moreover, the ever-decreasing rate of readership and readership of newspapers increases the role and impact of headlines that capture readers' attention and read the text. In terms of journalism and readers' acceptance, the headline plays an important role and function as much as the text of a newspaper article. Although the headlines serve as the front door of newspaper articles, they are common in the world, b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dlines and the practices of headlines may differ from one language culture to another. The biggest feature of the Korean headline is that it uses a lot of quotes directly in the headline. Although direct quotes are intense elements that cause the reader's visual tension in the article text, they are used from the beginning, and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y are used with special attention (Brooks, Kennedy, Moen, & Ranly 2002) The frequency is markedly higher. The so-called 'double-quoted journalism', which directly quotes the title of the article, has long been pointed out by Korean journalism scholars (Lee 2007; Hwang 2008). 'Dual-quote journalism' is a term that criticizes Korean headline journalism practice, which does not independently verify the contents of a specific source, but makes a citation

(Lee 2007: 67). This study focuses on ‘double quotation journalism’ in Korea and examines how Korean headline journalism practice is reflected and controlled in Korean - Japanese translation.

▶ Key Words: Direct Quotation Journalism, Headlines, News agency, Functionalist, Softening of headlines.

▶ 주제어: 쌍따옴표 저널리즘, 헤드라인, 통신사, 기능주의, 연성화

박미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부교수

ppsmjj@naver.com

관심분야: 뉴스번역, 문학번역, 통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9년 8월 4일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 2019년 9월 15일